



일주분



남북불교 통합론 설법
법타평불협 공동회장은 12일 한국일보 송현를림에서 열린 창립 9돌 기념법회에서 '남북불교 3단계 통합론'을 발표했다.



KBUFO카데미 졸업식
지흥 조계사 주지는 18일 오후 2시 조계사 설법전에서 KBUFO아카데미 '제4회 졸업식'을 봉행했다.



관세음 보살상 점안
보선 해남 대운사 주지는 7일 대운보전에서 '관세음보살상 및 관세음탱화 점안식'을 봉행했다.



日 종교인 국토순례 참석
진관 불교인권위원회 위원장 스님은 8일 일본 동경 묘법사에서 주최하는 한일 종교인 국토순례 행진 참석차 출국했다.



통도사로 성지순례
퇴휴 무진법장사 주지는 20일 불보종찰 통도사로 정월 성지순례기도를 떠난다. 출발은 법장사에서 오전 6시30분.



독일 지원 수계법회 참석
혜원 한마음선원 주지 스님은 뒤셀도르프 독일지원회에서 열리는 수계법회 참석차 8일 출국했다.



'업' 주제 불교사상 강좌
최봉수 동국대 사회교육원 교수는 14일 오후 2시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열리는 불교사상강좌에서 강의한다.

인사

불교방송
△홍사성(본부장) △구기범(경영관리국장겸 광고영업부장) △김정복(보도 제작방송국장 직무대리) △구태서(관리부장 겸 전략홍보사업부장) △백낙찬(기획·검사·심의역겸 특임위원) △최찬기(기획·검사·심의역겸 특임위원) △진영조(제작부장 직무대리) △김학주(편성·개발부장 직무대리 겸 편성기획팀장) △전상진(정치·경제보도부장 직무대리) △전진수(사회·교육·문화 보도부장 직무대리) △박사희(기술부장 직무대리) △박정원(기획·검사·심의역 겸 특임위원) △박상필(포교제작팀장) △이웅진(교양제작팀장) △이선희(아나운서·다기능역팀장) △문홍식(기술개발·관리팀장) △정재의(기술총괄팀장)

“부모와 함께 즐거운 법회 운영”

신사년을 뛰는 우바이 ⑤

어린이 포교 헌신
김현숙 포교사



“어린이 포교는 불교의 미래를 견인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어린이 포교가 활성화되도록 포교팀 조직정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조계종 포교사단 어린이포교팀장인 김현숙 포교사(45세)는 현재 조계사 청계사 관음정사 선재정사 등 4개 사찰 어린이 법회를 직접 지도하는 14명의 포교사들을 관리하고 있다.
포교사단 어린이포교팀은 올해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위해 분기별 모임을 정례화하여 어린이포교현황 점검 및 포교프로그램 공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10여개 사찰을 대상으로 어린이 법회가 개설되도록 하

기 위한 준비작업도 진행중이다.
김 포교사는 어린이포교 활성화를 위해 “요즘 세대가 가족단위로 움직이는 특성이 있는 만큼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어린이 포교프로그램을 준비중이다”고 밝혔다.
포교사단에서도 어린이포교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신임 포교사 우선배치와 포교비 지급을 약속하고 있어선지 김 포교사의 의

욕은 대단히 높았다.
김현숙 포교사는 교계의 알려지지 않은 일꾼으로 통한다. 김포교사는 조계사 신행상담실 상담원, 자비의 전화 전화상담원, 조계사 어린이법회 주임, 학교 심성수련프로그램 지도교사등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특히 매주 두곳의 학교에서 특별활동시간이나 방과후시간에 진행되는 심성수련프로그램은 많은 보람을 주며 습관성 가솔과 가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성격장애를 일으키는 부적응학생들이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좋은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김포교사는 앞으로 “어린이·청소년포교에 적극 나서기 위해 전문상담가로 활동할 계획”이라며 “많은 아이들이 집에서는 착한 학생으로, 학교에서는 문제아로 이중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부모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 어린이 청소년들과 부모가 함께 접해도 가서 심성을 일깨웠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현숙 포교사는 1989년 조계사 불교대학을 1기로 졸업하고, 95년 자비의 전화 상담교육과 서울시교육청 심성프로그램지도 교육을 96년 이수했다. 현재 조계종 포교원 어린이교사대학에 재학중이다.
김현우 기자(www.kim@buddhopia.com)



광덕스님 2주기 추모법회

금강당 광덕대선사 2주기 추모법회가 4일 불광사 대법당에서 1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불광법회법주 지정스님은 “마하반야바라밀 보현행원의 참뜻을 깊이 헤아려 불교의 대중화, 생활화가 이뤄지도록 불광 불자들이 앞장서자”고 밝혔다.



관문사 주지 춘광스님 취임법회

서울 관문사 제2대 주지 춘광스님 취임법회가 4일 관문사 옥불보전에서 성대히 봉행됐다.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스님, 박형철 참의원장 등 종단 간부스님들과 신도 등 사부대중 5천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춘광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명실상부한 수도권 포교의 중심사찰로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대불교 제6회 신행수기 시상식

본사가 주최한 제6회 신행수기 공모 시상식이 3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개최돼 대상 임순기씨 등 7명의 수상자가 상패와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및 한마음요전)을 각각 받았다. 이날 시상식에는 흥파 관음종 총무원장, 현오 총화종 총무원장, 최명준 대한불교진흥원 사무국장 등 사부대중 2백여명이 참석했다.



동산불교대 신입생 입학식

동산불교대학(학장 무진장스님)은 3일 교육회관에서 정병조교수(동국대 교수) 김재일이사장(동산반야회) 이차관단장(동산포교사회)을 비롯하여 196명의 신입생이 참석한 가운데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날 입학식에서 학장 무진장스님은 “한국불교를 바르게 공부하여 열심히 포교하는 역군이 되어달라”고 말했다.

천태사상 연구 40년 ‘외길’

28일 정년퇴임하는 동국대 이영자 교수



“능력 없는 사람이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 바쁘기만 하다보니 벌써 정년이네요.”
평생을 한국천태사상 연구에 바친 이영자(동국대 불교대학원장) 교수가 28일 정년 퇴임한다. 40여 년 세월을 불교학 연구와 후학 육성으로 외길을 걸어온 이 교수는 “부처님 품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것을 업으로 삼을 수 있었다는 건 큰 행운이었다”면서도 “순수 천태학을 공부하는 제자들을 많이 길러 내지 못해 가슴 아프다”고 아쉬워했다.
60년 동국대에 입학, 불교학과 인연을 맺은 이 교수는 65년 동국대 대학원에서 <천태대사의 교관에 관한 연구>로 석사 학위를 받았고, 일본 다이쇼(大正) 대학에 유학해 82년 <한국천태사상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는 등 지금까지 한국 천태사상 연구에만 매달려 왔다.
“학문에 대한 욕심보다 신앙생활의 일환으로 불교 강의를 한다던 어디든 쫓아 다녔다. 그러다 조영기 박사의 천태교과 강의를 들으며 엄청난 감동을 받았고 그것이 나를 천태학으로 이끌었다.”
이 교수는 <천태사상의 전개>(민족사) 등을 통해 천태사상이 한국에서 어떻게 전개돼 왔는지를 체계적으로 탐구해 온,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천태학자로 평가 받고 있다.
우리 나라 최초의 여성 불교학자라는

평가 외에도 이 교수에게는 ‘최초’라는 수식어가 또 붙는다. ‘불교 여성학’ 분야다. 박사 논문을 쓰기 전, 동국대 여학생 감을 맡으면서부터 불교 여성문제에 관심을 갖게 돼, 84년 이화여대와 숙명여대에 이어 남녀공학 대학으로는 처음으로 동국대에 여성학 강좌를 개설해 했다.
이후 85년 한국여성학 창간호에 실린 ‘불교의 여성관의 새로운 인식’을 비롯해 불교 여성문제에 대한 논문과 평론 등을 꾸준히 발표해 왔다.
“솔직히 시련스럽다”는 이 교수는 퇴임을 앞두고도 여전히 바쁘다. 불교여성학 관련 글들을 모은 <불교와 여성>(민족사)과 강의교재를 보충해 새로 역은 <천태불교의 이해>(가제·불지사가 3월에 출간되기 때문이다. 순수 학술 논문들은 올 가을쯤 <천태법화사상과 불교>(동국대 출판부)로 묶여 나온다.
권형진 기자(jinny@buddhopia.com)

“전통문화행사 열어 지역인 귀의처 삼겠다”

삼광사 주지 취임 도원스님



지역민들에게 편안 한 귀의처가 될 수 있도록 각종 문화예술 행사를 많이 개최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1일 제 7대 천태종 삼광사 주지로 취임한 도원스님은 부산지역에서 맡은 첫 소임의 각오를 이렇게 밝혔다. 초밤삼의 마음으로 스스로 하심하면서 모든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도원스님은 삼광사의 여러 사업과 불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부산지역 불교현황 파악에 한창이다. 도원스님은 앞으로 “부산지역 타 종단의 여러 스님들을 방문해 부산 지역 불교계의 화합과 협력을 도모하는 삼광사가 되도록 겸허한 자세로 주지직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도원스님은 역대 주지스님들이 진행해온 삼광한글학교, 서예교실, 독서실, 금강불교대학 등을 더욱 활성화해 지역민과 함께 하는 삼광사가 되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종단과 사부대중의 뜻을 모아 삼광사를 문화 예술의 중심지가 되도록 운영하겠다는 도원스님은 구체적인 사업 구상이 끝나는 대로 다양한 전통 문화행사를 많이 개최하겠다고 강조했다.
많은 법문보다는 따뜻한 마음을 서로 나누는 것이 사부대중이 진정 화합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는 도원스님은 “부산 신도님들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크고 작은 일들을 하나하나 챙겨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전미희 기자(mhcheon@buddhopia.com)

Advertisement for 한국불교연구원 (Korean Buddhist Research Institute). Includes contact info: (02)3411-6167~8 / 지하철3호선 대치역, 63번 버스 이용 개포동 5단지, 개포빌딩 6층.

Advertisement for 2001학년도 제10기 법사 양성 교육을 위한 한국불교법사대학 (Korean Buddhist Law School). Includes details about the 10th cohort of law students and contact info: (02) 720-1836 · 733-1959.